

내년부터 학부제 전면 실시

서울 17개 학과를 7개 학부로 수원 공청회 논의 활발

97학년도부터 학부제가 전면 실시된다.

교무처에 따르면 서울캠퍼스의 경우 문리대는 인문계열과 지리학과를 제외한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수학과를 이 학부로, 법학과와 국제법학과를 법학부로, 경영학과와 회계

학과는 경영학부로, 경제학과와 무역학과는 국제통상학부로, 정치외교학과와 행정학과를 정치행정학부로, 신문방송학과를 언론정보학부로, 아동주거학과, 식품영양학과, 의상학과는 생활과학부로 총 16개 학과를 7개 학

서울캠퍼스 유승희 교무처장은 “학부제가 내년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최소전공 인정학점제(36학점), 복수전공제 등 제도개선 및 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교무처장은 학부제가 추진될 단과대학은 단과대학

및 학과를 폐지하고 학부장제도를 신설하는 등 학부행정체제로 개편된다고 덧붙였다.

학부제하의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전공교육과정은 단일전공 심화과정과 다전공 이수과정으로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단일전공 심화과정의 경우 이수학점을 졸업학점의 50%이내로 제한하고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또한 학부제하 교육과정위원회를 신설, 학부가 독립적으로 교육과정, 강의, 시험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학부제 추진위원회는 교수들과 합동으로 ‘단과대 학부제 공동조약’을 구성해 실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수원캠퍼스는 학부제와 관련하여 학교의 공식적인 학부 구분에 대해서는 밝힌 바 없으며, 단지 각과 학생회를 중심으로 이번 주중에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구영준 기자)



▲18일 오후 총장실을 접견하고 있는 한의대 학부모 회의

한의대 등록 30일까지 연장

전한련 “선별제적시 자퇴로 맞설터”

지난 16일 교육부가 정한 최종 등록시한에 임박 대량제적이 우려되었던 한의대생들은 교육부가 학생들의 제적 여부 결정을 각 학교 측에 넘기고 전국 11개대학 총장들이 지난 19일 회의를 통해 한의대생의 등록기간을 일반학생과 같은 오는 3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교육부는 당초 16일까지 미등록자에 한해서는 선별제적시킴으로써 등록기간을 강력히 표명했지만 16일이 되어도 등록을 하지 않자 시한을 다음날 정오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이후 제적여부 결정권을 아예 학교측으로 넘김으로써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혼란을 초래했다.

한 학부모는 이에대해 “교육

부의 잦은 입장변경은 우선 자신들이 내세운 원칙을 지키지 않아 부당하지만 무엇보다 자식걱정에 가슴졸이는 부모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처사”라며 “교육부가 입장을 변경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라고 밝혔다. 학부모 회의는 지난 18일 학교측의 소신있는 대응을 요구하며 총장실을 접견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 연합(전한련) 측은 등록기간 연장과 등록을 상응에도 불구하고 등록 수업거부 투쟁이라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한련은 교육부의 방침이 학생들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이미 등록한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과, 선별제적시 자퇴서 작성 등으로 이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21일까지 우리학교 한의대생들의 등록률은 62.1%를 보이고 있다.

서울, 부총 김희영 연행

서울캠퍼스 부총학생회장 김희영(신방 4)군이 지난 14일 청량리 경찰서로 연행됐다.

한국총학생회연합(한총련) 중앙의원인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련) 대의원인 김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종로 공원에서 있었던 ‘안기부법 개악저지’를 위한 국민대회 직후 연행되었으며 현재는 노원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중이다.

한편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김중욱(사학 4)군은 구속기소되어 재판 대기중에 있다.

경희의료원

건강진단 할인제 확대

경희의료원이 동서종합건강진단 할인제도를 지난 9월 17일부터 확대 실시키로 했다.

재학생의 애교심 고취와 대내의 양·한방 종합검진을 널리 홍보하고자 시행하게 된 이번 제도의 세부 내용은, 종전에는 경희대학교 재학생 및 가족에 한하여 10% 할인 혜택을 해주던 것을 경희학원내(각 병설학교 포함) 재학생 및 가족까지 추가 할인을 적용,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인 남녀가 각각 29만원과 32만원에 받게 되는 종합검진을 경희학원내 각 학교 재학생 및 가족은 남녀 각각 26만원천원과 28만8천원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주와 하반기 세미나

우주학과는 오는 10월 2일부터 학문의 이론과 실무의 향상을 목적으로 자연대 세미나실에서 강연회를 개최한다.

첫째날에는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항공우주연구소(항우연)의 채연석 박사가, 10월9일에는 ‘Broad Absorption Line Quasars’라는 주제로 서울대 이희원 박사가, 10월23일에는 ‘Sounding rocket에 대한 전리층 plasma의 하전효과’라는 주제로 이항재 박사가, 10월30일에는 ‘1.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PCA) as a tool for studies of kinematics and structure of galaxies. 2. HI properties of spiral & irregular galaxies’라는 주제로 연세대 이명연 박사가, 11월6일에는 ‘한국의 인공위성 개발현황’이라는 주제로 항우연의 김지철 박사가, 11월27일에는 ‘우주창조와 인생의 근본문제’라는 주제로 충남대 김광태 박사가 강연을 한다.

강연시간은 오후 3시30분으로 모두 동일하다.

귀향버스표 판매

수원캠퍼스 학생인권복지위원회(학부위)는 추석맞이 귀향차표 판매(중식제공)를 오늘까지 학생회관 로비에서 실시한다.

학부위에서는 학생회관까지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각 단과사무실에서 가접수를 받고 있으며, 방법은 가접수표를 작성한 뒤 해당노선의 요금을 내면 된다.

또한 반납은 24일 오후 5시까지 학부위 사무실에서 할 수 있다.

언론고시반 선발고사

언론고시반 신입실원 선발고사가 오늘 오후 6시 서울캠퍼스 정경대 306호 강의실에서 치뤄진다.

우리학교 2, 3학년 학생(전공 불문, 휴학생 가능,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시험에서 치뤄지게 되는 과목은 TOEIC과 논문이고 제출서류는 입실지원서 및 성적증명서이다. 단, 소지자에 한해서는 TOEIC성적표 제출도 가능하다.

이번 시험에서 합격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성적우수자)과 기숙사 입주의 특전이 주어진다.

제2회 경희사진 공모전

저희 대학주보사에서는 우리학교의 자연과 학생들을 소재로 한 제2회 경희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우리학교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자료를 발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이 공모전에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출품자격: 재학생, 대학원생, 동문, 교직원등 모든 경희 구성원
2. 작품내용: 캠퍼스 경관 및 우리학교 학생들의 생활모습(우리학교와 관련된 소재이면 내용에 관계없음)
3. 규격: 8×10 사진을 첨부한 원판 필름(사진에 패일 부착 금지)
4. 출품수: 1인당 10점 이내의 미발표작 (타 공모전 입상작이나 모방작은 입상취소)
5. 출품요령: 출품료는 없으며 작품명, 촬영장소, 작가명, 주소, 학과/학년, 전화번호를 따로 적어 제출(학생이 아닌 경우는 해당사항을 명기할 것)
6. 작품접수: 1996년 9월 23일~11월 5일까지(우편접수는 11월 5일 도착분까지)
7. 접수처: 대학주보사 편집실(서울: 961-0094 수원: 280-2056)
8. 입상작 발표: 1996년 11월 11일자 대학주보 지면을 통해 발표함
9. 시상내용: 장원 1작 장학금(상금) 1백만원, 우수상 2작 장학금(상금) 50만원, 각작 3작 장학금(상금) 10만원
10. 참고사항
 - 1) 모든 입상작품은 대학주보사에 귀속됨.
 - 2) 시상식, 전시회 및 낙선작 반환에 관한 사항은 입상작 발표시 알릴 예정임

대학주보 수습기자 모집 10월 1일 마감

경희 슬로건 공모 오는 10월 11일까지

대/학/주/보/사

교시 탐

실질적인 학점교류를 위하여

▼작가가 글을 쓰는 스타일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의 큰 주제를 잡아 그 주제에 맞게 세부적인 내용을 서술해 가는 방식과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용해 연관성을 찾아 큰 주제를 잡고 글을 서술하는 스타일 두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중 대부분의 작가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전자의 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좋은 주제를 갖고 있다 해도 세부적인 내용의 전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글은 좋은 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글의 주제를 희석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수원캠퍼스 및 인내대, 한국항공대, 아주대를 비롯한 경기지역 11개대학에서는 97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간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학점교류 상호 인정 및 교수 교환제, 연구과제 공동수행 등 공동연구 및 교육교류를 위해 상호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각 대학간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학점교류가 시행될 경우 학생들은 경기지역 11개대학 내에서 원하는 대학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직 학점교류에 관한 정확한 시행안은 나와 있지 않으나 실질적

으로 타 대학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교통 여건상 일주일에 하루를 타 대학에서 보내야만 한다. 그러나 이번 학점 교류인정제가 현재 서울캠퍼스와 수원캠퍼스간에 이루어지는 형태로 한학기 6학점 이내로 교류가 허용된다면 현실적으로 학생이 한 주동안 하루를 할애 하기란 불가능할 것이고 또한 교양과목에 한해서만 이 제도를 실시한다면 학생들의 수강강좌 선택폭이 줄어들어 학점교류 인정제의 취지인 교육교류에 부합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학점교류와 학생들의 편의를위해서는 교류학점을 6학점 이내로 한정 시키기 보다는 각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수강과목 선택에 있어서도 전공과 교양에 관계없이 자신의 대학에 개설된 강의과목이라도 타대학에서 같은 과목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세부조항까지 빈틈없이 계획된다면 교류학점제는 애초 의도와 같았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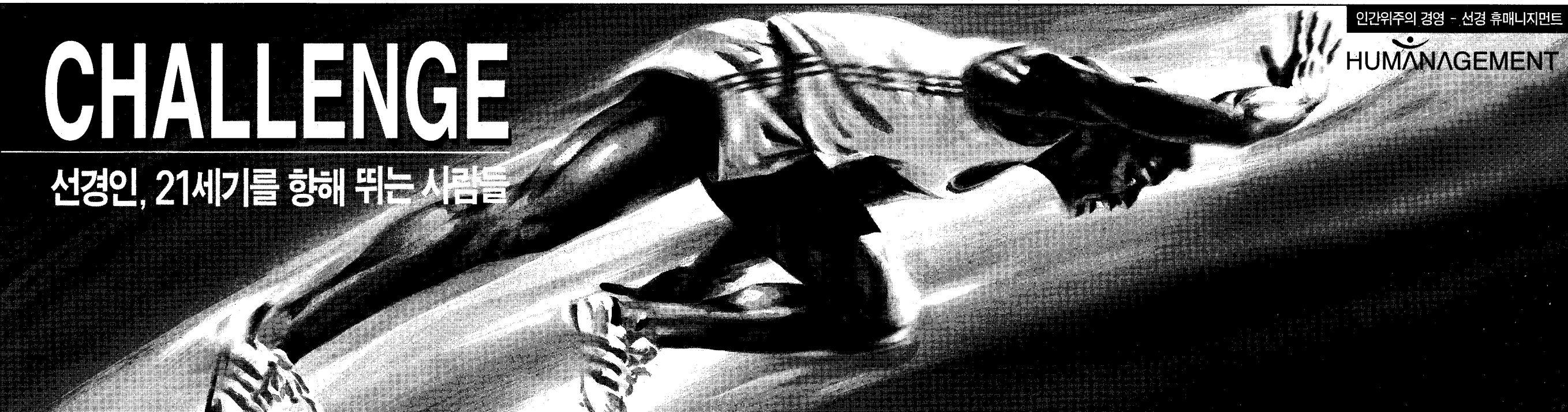
(공광섭 기자)

추석연휴로 한 주 쉽니다

최종등록 오는 30일까지

CHALLENGE

선경인, 21세기를 향해 뛰는 사람들



인간위주의 경영 - 선경 휴머니지먼트

HUMANAGEMENT

선경은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선경을 키웁니다.

선경은 지금 새로운 도전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70년대 초 '석유에서 섬유까지'의 수직계열화 체계를 천명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경은 결국 해냈고, 종합에너지·종합화학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경은 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 정밀화학, 생명과학, 신소재, 대체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선경으로 오십시오. 21세기에 대한 도전의 시간 속으로 오십시오.

선경은 사람을 키우는 땅입니다.

선경에는 인재들의 자기발전 기회가 많습니다. 세계 30여 개국에서 최고 한달여 동안 실시하는 '신입사원 해외전지훈련', 1년간 해외에 파견, 현지 전문가로 키우는 '파이오니어 포스트', 해외 비즈니스를 및 연구기관 등에 파견, 차세대 경영자를 양성하는 '장기 해외연수 프로그램',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해 미국 유수의 국제 경영대학원에 개설된 '선경 Thunderbird 프로그램', 파장, 차장도 사장이 될 수 있는 '사내기업가제도' 등등. 이렇게 선경은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는 선경의 21세기를 밝힙니다.

1년, 365일 선경이 인재를 모집합니다.

- 정기공채를 폐지하고 선경채용상담실에서 연중상시로 입사면담은 물론 지원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365일 인터넷으로 지원서 접수 및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 대학 4학년 이상의 학생이면 누구나 선경에 응시하여 자기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선경채용상담실: (02) 728-0212/0222 FAX: (02) 753-7401
 ● Web Homepage: http://www.sk.co.kr
 ● E-Mail: join@sk.co.kr

SUNKYONG
鮮京그룹